

17~19세기 忠淸道 懷德 飛來書堂契의 운영 변화 양상

한미라*

〈차 례〉

1. 서언
2. 비래서당의 창건과 비래서당계의 시행
3. 비래서당계의 운영
4. 비래서당계 구성원의 특징
5. 결언

[국문초록]

본 논문은 17~19세기 비래서당계의 구성원과 특징을 분석하여 비래서당계의 운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래서당은 충청도 회덕현 내남면에 위치한 서당으로, 1647년 은진송씨가 비래암에 재사를 증축하면서 그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비래서당계가 설계(設契)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비래서당계와 관련한 자료는 『비래서당계(飛來書堂座目)』(1), 『비래서당계(飛來書堂座目)』(2), 『비래서당계(飛來書堂座目)』(3), 『옥류각계첩(玉溜閣契帖)』 등이 남아 있다. 자료를 살펴볼 때, 비래서당계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운영되다가 폐계(廢契)되었다. 이후 1883년에 옥류각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졌으며, 이 계는 20세기 초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래서당계의 운영을 살펴보면, 비래서당계는 3월과 9월에 모임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19세기 말에 다시 만들어진 계의 경우 1883년부터 1907년까지의 『도기』가 남아 있어, 실제 모임이 있었던 날짜, 임원의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기』를 살펴보면, 실제로 모임은 대부분 매년 3월과 9월에 있었다. 17세기 중엽~18세기 초반의 비래서당계와 19세기 말에 다시 만들어진 계의 운영에서 크게 다른 점은 벌목이다. 17세기 중엽~18세기 초반 벌목의 경우 상벌, 중벌, 하벌 모두가 태노(拷奴)인 반면 19세기 말의 벌목은 사류와 장자로 나누어 상벌, 중벌, 하벌을 규정하였다.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비래서당은 은진송씨의 문중서당으로, 비래서당계의 구성원은 은진송씨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비래계서당계 구성원의 경우, 은진송씨 이외의 다른 성씨는 은진송씨와 훈인이나 학맥으로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거나 그 후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비래서당계의 목적이 강화뿐만 아니라 은진송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 결합의 목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세기 말 비래서당계의 구성원의 특징은 은진송씨 중에서도 송준길의 후손인 동춘당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은진송씨 이외의 다른 성씨의 경우에도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성씨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비래서당, 비래암, 옥류각, 은진송씨, 회덕

1. 서언

1659년(효종 10)에 송준길(1606~1672)은 『향학지규(鄉學之規)』를 제안하였다. 『향학지규』의 주요 내용은 향촌에서 각각 서당을 세워 훈장을 두고, 수령은 이들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학도들이 시험을 보고 그중 가장 뛰어난 자에게는 동몽교관(童蒙敎官)이나 다른 관직을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¹⁾ 이는 17세기에 서당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면서 훈장들의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이 되자 이를 국가에서 관리하려는 의도로, 서당이 향촌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도 대소민인(大小民人)들의 교화처로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평가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²⁾

조선시대 서당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향촌사회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향촌에 위치한 서당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서당의 건립 주제와 운영 방식 등의 연구가 있으며,³⁾ 16세기 안동 지역의 서당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또한 17세기 후반에는 문중들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방

1) 『효종실록』 21, 효종 10년 2월 16일.

2) 정순우, 『18세기 서당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85, 32~33쪽.

3) 김부진, 『조선 후기 서당의 사회적 성격』, 『역사와 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4) 이남욱, 『16세기 퇴계학파의 서당 경영』, 『민족문화논총』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이수환, 『16세기 안동지역 서당의 경제적 기반』, 『민족문화논총』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정순우, 『16세기 안동지역 서당의 설립 양태와 ‘書院’化 과정』, 『민족문화논총』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김자은, 『16세기 안동 지역 서당의 강화활동과 교육내용』, 『민족문화논총』

안으로 서당을 설립 운영하였는데, 문중서당과 관련해서는 연기군 동면 결성 장씨가와⁵⁾ 충남 논산시 노성면 파평윤씨 노종파를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다.⁶⁾ 최근에는 충청도 청주 이참 부자의 서당 운영과 관련한 연구와⁷⁾ 옥천 자풍서당의 운영과 구성원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⁸⁾

송준길은 「향학지규」를 건의하기 20여년 전부터 충청도 회덕에서 비래서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후손들은 비래서당계를 만들었다. 비래서당계는 은진송씨(恩津宋氏)를 중심으로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졌으며, 18세기 초반까지 운영되다가 폐지되었다. 이후 비래서당계는 1883년에 옥류각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옥류각이라는 이름은 비래암 옆에 있는 누각으로 송준길이 학문을 닦던 곳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693년에 송준길의 제자들이 만들었던 누각이며, ‘옥류(玉溜)’는 송준길의 시구인 “층암에는 맑은 물 흘러내리고(層巖飛玉溜)”에서 가지고 왔다.⁹⁾ 비래서당계는 문중서당으로, 17세기 후반부터 계가 다시 만들어진 19세기 말까지 회덕에서 은진송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 결합과 세력 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은진송씨 비래서당계와 옥류각계 관련 연구는 성봉현의 연구가 있다.¹⁰⁾ 성봉현은 비래서당계와 옥류각계의 관련 자료와 자료의 구성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래서당의 설립이나 비래서당계 좌목에 작성된 인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17~19세기 비래서당계의 운영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래서당계와 관련된 자료는 『飛來書堂座

총』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5) 이연숙, 「동족마을의 서당 설립과 근대적 변화: 연기군 동면 결성장씨가를 사례로」, 『조선시대사학보』 37, 2006.

6) 이연숙, 「조선후기 양반가의 문중교육: 충남 논산시 노성면 파평윤씨 노종파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2, 2009.

7) 박용만, 「16세기 李潛 부자의 서당운영과 강화활동」, 『고문서연구』 58, 한국고문서학회, 2021.

8) 고수연, 「17세기 忠淸道 沃川 資風書堂의 운영과 인적구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역사문화학회, 2021.

9) 『同春堂集』 제24권 「詩」; 『霽月堂集』 제2권 「詩」

10) 성봉현, 「회덕 은진송씨가의 비래서당계와 옥류각계」, 『대전문화』 16,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7.

目』(1), 『飛來書堂座目』(2), 『飛來書堂座目』(3),¹¹⁾ 『玉溜閣契帖』 등이 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2장에서는 비래서당이 설립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좌목에 작성된 명단의 생몰년을 파악한 후 비래서당좌목의 작성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비래서당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비래서당계 좌목 구성원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에 회덕에서 운영되었던 은진송씨 문중서당의 운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비래서당의 창건과 비래서당계의 시행

비래서당은 조선시대 충청도 회덕현 내남면에 위치한 서당이다.¹²⁾ 비래서당과 관련된 기록은 읍지, 문집 등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와 『회덕읍지(懷德邑誌)』에서는 “비래암은 내남(면)에 있으며, 송준길의 별업(別業)이다.”¹³⁾라고 하였다. 비래암은 비래서당을 의미한다. 또한 민우수의 『정암집(貞菴集)』에서는 “송촌 동쪽 산기슭에 비래동서당이 있으니 두 선생께서 남기신 행적이 남아 있다네.”¹⁴⁾라고 하였다. 두 선생은 은진송씨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송준길과 송시열을 의미한다. 즉, 비래서당은 은진송씨 세거지인 회덕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은진송씨의 兩宋으로 불려진 송준길, 송시열 등과 관련이 있는 서당임을 알 수 있다.

비래서당의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송시열과 송준길의 기록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송시열(1607~1689)의 『송자대전』을 살펴보면,

11) 『飛來書堂座目』(1), 『飛來書堂座目』(2), 『飛來書堂座目』(3)의 표지는 모두 『飛來書堂座目』이다. 자료 구분을 위해 작성된 순서에 따라 (1), (2), (3)을 붙였다.

12) 조선후기 충청도 회덕현은 현내면(縣內面), 동면(東面), 내남면(內南面), 외남면(外南面), 서면(西面), 북면(北面), 일도면(一道面) 등 7개 면이 있었다.(『懷德邑誌』(1786))

13) 『輿地圖書』上 『忠淸道』懷德: 『懷德邑誌』(1786)

14) 『貞菴集』 제4권 『書』

송정(崇禎) 8년

2월 제생(諸生)을 거느리고 회덕 비래동의 천석(泉石)을 구경하고 이어 서재(書齋)를 지었다.

4월에 동춘이 서울로 병 치료하러 가므로, 선생이 송현서원에서 전송하고 곧 비래암(飛來庵)으로 들어가 전심으로 글을 읽으면서 제생(諸生)을 가르쳤다. 이때 곽 부인(郭夫人)이 중형(仲兄)의 구룡촌 집에 있었는데 오직 문안하러 갔다 왔다 했고, 한 걸음도 산어구를 나가지 않았으며 못을 파 연을 심고 축대를 쌓아 대나무를 심어, 한가로이 거기서 일생을 마치려는 뜻이 있었다.¹⁵⁾

위 기록을 살펴보면, 송시열은 송정 8년인 1635년 2월에 비래동을 구경하고 서재를 지었으며, 두 달 후인 4월에 비래암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자료에서 언급된 ‘서재’와 ‘비래암’은 다른 곳이 아닌 모두 비래서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는 서당, 정사, 서실, 서재 등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었으며, 용어의 혼용은 서당이 평민층 이하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교육기관으로 정착되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¹⁶⁾ 서당과 관련된 용어가 혼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운영의 근본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서당은 강화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¹⁷⁾ 단편적 기록이기는 하지만 송시열이 비래암에서 학생을 가르쳤다는 기록을 볼 때 당시 비래암은 기본적으로 강화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시열은 1635년 11월 봉림대군의 스승으로 중앙에 나아갔으며, 1636년 병자호란 등으로 인하여 비래암에서의 강화 활동은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후 비래암과 관련해서는 1639년 2월 송준길과 관련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생(諸生)과 함께 비래암에 모여 강독하였다. 송촌 동쪽에 비래동이 있는데, 절벽과 폭포의 경치가 제법 좋았다. 선생이 폭포

15) 『宋子大全附錄』 제2권, 『年譜』

16)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155쪽, 158쪽.

17) 정순우, 위의 책, 156~159쪽 참조.

위에 작은 암자를 지어 제생이 학업을 익히는 곳으로 삼았다.”¹⁸⁾라고 하였다. 송준길은 병자호란으로 1637년 1월 회덕을 떠나 영남 안음현 노계촌에 있다가 1638년에 회덕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해인 1639년부터 비래암에서 강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시열과 송준길 등과 교류를 맺었던 김경여의 문집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묘 12년, 선생 44세(1639년)… 동춘 등 제공 등과 함께 비래암에서 모였다. 비래암은 송촌의 동촌으로, 천석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 여기에서 兩宋이 함께 학문을 닦았다.”¹⁹⁾라고 하였다. 이처럼 비래서당은 송시열과 송준길이 중심이 되어 비래암에서 여러 유생을 강학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처음에 사용되었던 비래암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47년 비래암에 재사가 중창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송시열의 『비래암고사기(飛來菴故事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정 정해년(1647년)에 동중(洞中)의 종족(宗族)이 중 학조(學祖)를 시켜 재사(齋舍)를 중창하게 하였다. 재사가 낙성되자, 동춘(同春) 송공이 이것을 (공부하러 온 여러 수재는 벽에 낙서하여 새 재사를 더럽히지 말라[來遊諸秀才慎勿壁書以汚新齋]는 열 세 글자를 썼다.) 종이에 써서 벽에 걸어 여러 학생을 경계하였다.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회덕의 은진송씨 종중에서 중 학조를 시켜 재사를 중창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상기(宋相琦, 1657~1723)가 작성한 비래암 수각의 상량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의 계획과 추진이 모두 장로인 송준길 선생에게서 시작되었고, 감독하고 정성을 쏟은 이는 화상 학조(學祖)였네.”²⁰⁾라고 하였다. 즉, 비래서당은 비래암에서 제생들을 강학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647년 이후 비래암에 재사가 중창되는 등 그 규모가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송시열이 회덕을 떠나

18) 『同春堂續集』 제6권, 『附錄』 1

19) 『松崖先生文集』 제5권, 『附錄』 1

20) 『玉吾齋集』 제12권, 『上樑文』

살았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비래서당에 왕래는 하였지만 비래서당은 회덕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송준길의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1647년 재사가 만들어지고, 다음 해인 1648년 비래암에서 40여 명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비래암고사기(飛來菴故事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무자년(1648년)에 시남(市南) 유공(兪公)이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퇴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동리의 늙은이와 젊은이가 많이 모여서 거의 40여 명이나 되었다. 감사 김유선(金由善)·참의(參議) 송택지(宋澤之)·찰방(察訪) 이사오(李士悟)·상사(上舍) 송사징(宋士徵) 형제, 시직(侍直) 신군필(申君弼)과 나의 증형(仲兄) 군수공(郡守公)이 연세 높은 이들이었고, 젊은이로는 사장의 아들 규정, 유선의 아들 진수, 동춘의 아들 광식, 군필의 아들 만, 택지의 아들 규광과 규장이 같은 연배로서 중간에 앉았고, 택지의 손자 기필과 외생(外甥) 김만주는 동자(童子)로서 가장 말석에 있었다. 동춘이, “이는 훌륭한 모임이니, 기록이 없을 수 없다.”하고, 곧 황생 세정(黃生世楨)을 시켜 성명을 벽에다가 일렬로 적었다.

1648년 비래암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송준길, 송시열 등 은진송씨의 사람들과 송준길, 송시열의 문인이라 불리는 인물들이다. 위의 기록에서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남 유공은 유계(兪槩, 1607~1664)를 이르며, 김유선은 김경여(金慶餘, 1596~1653)이다. 이들은 송준길, 송시열과 함께 김장생과 김집의 문인으로 교류했던 인물이다.²¹⁾ 특히 김경여는 어릴 때부터 외가인 회덕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1648년 비래암 모임 참석자이기도 한 김경여의 아들 김진수도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하에 있었던 인물이다.²²⁾ 시직 신익룡(字:君弼, ?~1657)은 그의 아들 신만(1620~1669)과 함께

21) 김문준, 『기호유학에서의 우암 송시열의 위상』, 『유학연구』 1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7, 197~222쪽 참조.

1639년경에 회덕 송촌으로 이주하였다. 송시열이 작성한 신익룡의 묘갈명에는 신익룡은 송준길, 유계, 윤문거, 윤선거 등과 가장 친하게 교류하였다고 하였다.²³⁾ 또한 그의 아들 신만 역시 송준길과 송시열과 교류하며, 동춘당 송준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의국(醫局)에 관여했던 인물이다.²⁴⁾ 찰방 이경(字:士悟, ?~1658)도 김장생과 김집의 문인이며, 송시열의 막내 여동생과 혼인한 인물이다.²⁵⁾ 이외에 참의 송국택(字:澤之, 1597~1659)과 그의 아들 송규광, 송규장, 송택지의 손자 송기필, 상사 송국시(字:士徽, 1600~1665)와 그의 아들 송규정, 송국시의 형제²⁶⁾ 등과 송준길의 아들 송광식은 회덕의 은진송씨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648년 비래암 모임의 젊은이 무리에서 김만주를 제외한 송규정(1622~1669), 김진수, 송광식(1625~1664), 신만, 송규광(1623~1667), 송규장(1629~1653), 송기필(1642~1669) 등은 1660년대 작성된 『飛來書堂座目』(1)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비래서당에서 은진송씨와 그 관련 문인들이 강학 등을 하였으며, 비래서당 강학 등에 참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비래서당계를 조직한 후 비래서당좌목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17세기부터 동성촌락은 그들의 혈연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중서당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18세기 후반에는 학전(學田), 학름(學廩)의 설치 및 서당계의 형성이 서당 설립과 운영에 근간이 되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²⁷⁾ 비래서당계는 알려진 다른 사례의 학계보다 빠른 17세기 중반에 조직되었지만²⁸⁾ 비래서당계가 만들어진 목적 역시 비래서당의 조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현재 비래서당계 관련된 자료는 『飛來書堂座目』(1), 『飛來書堂座目』(2),

22) 『同春堂集續集』 제12권, 『附錄』 7.

23) 『國朝人物考』 권33 『休逸』

24) 양승률, 『舟村 申曼의 『保幼新編』 편찬과 『舟村新方』』, 『장서각』 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61~62쪽.

25) 『同春堂集』 17권, 『祭文』 찰방 이경에게 고하는 제문

26) 송국시의 형제는 송국보, 송국귀, 송국호가 있다. 『恩津宋氏族譜』, 1887)

27) 이유, 『18세기 가학 전승과 문중서당』,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142쪽.

28) 성봉현, 앞의 논문, 94쪽.

『飛來書堂座目』(3), 『玉溜閣契帖』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1]이다.

[표1] 비래서당계 관련 자료

| 자료명 | 구성 |
|-------------|--|
| 『飛來書堂座目』(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飛來書堂座目: 119명 · 書堂立議: 11개조 · 罰目: 3개조 |
| 『飛來書堂座目』(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飛來書堂座目(舊錄): 38명 · 飛來書堂座目: 247명(12차례 追入: 총 114명 포함) · 書堂立議: 11개조 · 罰目: 3개조 |
| 『飛來書堂座目』(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飛來書堂座目(舊錄): 95명 · 飛來書堂座目: 168명(1차례 追入: 총 21명 포함) |
| 『玉溜閣契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玉溜閣講會契帖序 · 玉溜閣契座目: 79명 · 學規: 9개조 · 立議: 10개조 · 罰目: 3개조 |

[표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비래서당계 관련 자료는 참여했던 인물의 명단인 좌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 『飛來書堂座目』(1)은 구록이 없는 반면 『飛來書堂座目』(2), 『飛來書堂座目』(3)은 원래 비래서당계원이었지만 좌목 작성시 사망한 사람 명단은 구록(舊錄)에 별도로 작성하여, 구록과 신록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⁹⁾ 『玉溜閣契帖』은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작성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 위에는 ‘讞’를 작성하였다.

[표1]의 비래서당계 관련 자료에서는 작성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작성시 좌목에 작성된 사람들의 생몰년을 통해 자료 작성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飛來書堂座目』(1)은 구록 없이 119명의 명단이 작성되어 있다. 좌목은 처음에 작성된 송광주(1613~1680)부터 82번째 작성된 송병익(1655~1718)까지 나이순으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송광주부터 송병익까지 82명의 인물 중 가장 먼저 사망한 인물은 송준길의 아들 송광식으로 16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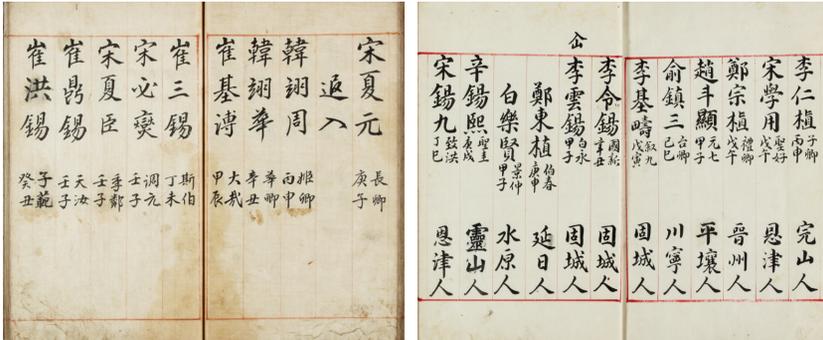
29) 『飛來書堂座目』(2)와 『飛來書堂座目』(3)은 ‘飛來書堂座目(舊錄)’와 ‘飛來書堂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록’과의 구분을 위해 ‘飛來書堂座目’을 ‘신록’이라고 하였다.

7월에 사망하였다. 이를 볼 때 송광주부터 송병주까지는 1655년부터 166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83번째 송상필부터 107번째 이덕연까지의 명단 기재 방식은 나이순이 아닌데, 이는 추입으로 명단이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83번째 송상필부터 107번째 이덕연까지 중에서 가장 늦게 태어난 인물은 송치명과 송래경으로, 1664년에 태어났다. 대부분의 명단에는 字가 함께 작성되었는데, 송치명과 송래명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관례를 치르고 나서 붙여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飛來書堂座目』(1)은 1670년대 초반까지 추입자를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飛來書堂座目』(2)는 다른 자료와 다르게 자료의 마지막 장에 “송정 병인 4월(崇禎丙寅四月)”에 개정되었다고 쓰여있다. 송정은 1628~1643년이다. 그러나 1628~1643년 사이에는 ‘병인’에 해당되는 연도가 없다. 따라서 『飛來書堂座目』(2)에 작성된 사람들의 생몰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飛來書堂座目』(2)는 구록에 38명과 신록에는 추입자를 포함하여 247명의 명단이 작성되어 있다. 『飛來書堂座目』(2)는 추입의 경우 ‘追入’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구록은 『飛來書堂座目』(2)의 신록 작성시 죽은 사람을 작성한 것인데, 생몰년이 확인되는 사람들 중 가장 늦게 사망한 인물은 송규연으로 1685년 7월 4일에 사망하였다.³⁰⁾ 『飛來書堂座目』(2)의 신록은 추입자 제외한 송시범부터 송하원까지 115명과 뒷부분에 별도로 작성된 18명의 서자의 생몰년을 확인했을 때,³¹⁾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병인(丙寅)’은 1686년이다. 따라서 ‘송정 병인’은 1686년인 병인년 4월을 의미한다. 『飛來書堂座目』(2)는 12번의 추입이 작성되었는데 추입자 중 가장 늦게 태어난 인물은 송상택으로, 1694년에 태어났다. 이를 볼 때 『飛來書堂座目』(2)는 추입자는 1700년대 초반까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飛來書堂座目』(3)은 구록 95명과 신록 168명이 작성되었다. 신록 168명 중 21명은 추입자이다. 『飛來書堂座目』(3) 구록의 인물 중에서 송광림은 1711년 3월에 사망하였고, 신록에 작성된 인

30) 『恩津宋氏族譜』, 1887.

31) 송시범부터 송하원까지 115명과 뒷부분에 별도로 작성된 18명의 서자 중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은 송광영으로, 1686년 7월에 죽었다.



[그림1] 『飛來書堂座目』(2)(1686)과 『玉溜閣契帖』(1883)

물 중에서 송래장은 1716년 4월에 사망하였다.³²⁾ 즉, 『飛來書堂座目』(3) 기록과 추입된 21명을 제외한 신록의 명단은 1711년 3월과 1716년 4월 사이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비래서당계가 중도에 없어졌다가 옥류각 근처에 있는 비래암에서 유안(遺案)을 찾게 되어 중단되었던 계를 약 200여년 만에 다시 만들고 이름을 옥류각계라 하였다.³³⁾ 즉, 폐지되었던 비래서당계는 옥류각계라는 이름으로 중수되었다.³⁴⁾ 중수된 옥류각계는 좌목에 작성된 인물의 생몰년과 『옥류각 향음주례시도기(玉溜閣鄉飲酒禮時到記)』를 살펴볼 때 1883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³⁵⁾ 『玉溜閣契帖』의 『玉溜閣契座目』에는 79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1828년에 태어난 송중오부터 1874년에 태어난 조동노까지 61명은 나이순으로 작성되었는데, 계가 만들어졌던 1883년에 작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62번째 송헌만부터 79번째 이영석까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작성되었으며, 추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류각계의 경우 1884년 3월에 작성된 『追入錄』 남아 있는데, 『玉溜閣契座目』에 추입된 18명 중 송철용, 송헌만, 심두섭, 남용희, 정동식, 백락현 등 13명의 이름은 1884년 『추입록』에서 확인할

32) 『恩津宋氏族譜』, 1887.

33) 『玉溜閣契帖』 『玉溜閣講會契帖序』

34) 성봉현, 앞의 논문, 94쪽.

35) 『玉溜閣鄉飲酒禮時到記』

수 있다.³⁶⁾ 이처럼 비래서당계 좌목을 살펴볼 때, 비래서당계는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져 18세기 초반까지 운영되었으며 중간에 계가 폐지되었다가 19세기 말에 다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비래서당계의 운영

조선시대 서당은 서당마다 운영 규정을 두었는데 대표적으로 박세체가 경기도 파주의 광탄 근처에 세운 남계서당의 경우 「남계서당학규」를 확인할 수 있다.³⁷⁾ 서당의 규정은 서당의 운영 모습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비래서당계도 운영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당계원들이 지켜야 할 입의, 별목, 학규 등을 규정하고 있다. 『飛來書堂座目』(1)과 『飛來書堂座目』(2)에서는 「書堂立議」 11개조와 「罰目」 3개조 확인할 수 있으며, 『飛來書堂座目』(1)과 『飛來書堂座目』(2)의 「서당입의」와 「별목」 내용은 같다. 반면 1883년에 다시 조직된 후 작성된 『玉溜閣契帖』은 「學規」 9개조, 「立議」 10개조, 「罰目」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래서당계의 규정 등을 통해 비래서당계 운영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임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飛來書堂座目』(1)과 『飛來書堂座目』(2)에서는 유사 2명과 장의 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1년마다 교체하도록 하였다.³⁸⁾ 반면 『玉溜閣契帖』에서는 “계원 중에 나이가 많고 학업이 우수한 사람 1인을 계장으로 삼고, 다른 1인을 장의로 삼는다. 간사 2인을 가려서 유사로 삼는다. 또한 강직하고 끈은 사람 1인으로 직일을 삼는다”라고 하였다.³⁹⁾ 즉, 19세기 말 비래서당계에서는 계장 1인, 장의 1인, 유사 2인, 직일 1명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 2명 중 일유사는 강유사(講有司)를 겸하고, 이유사는 사화(司貨)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계장과 장의가 유고가 없으면 유

36) 『追入錄』(甲申三月十五日)

37) 정순우, 앞의 책, 169~171쪽.

38) 『飛來書堂座目』(1) 「書堂立議」; 『飛來書堂座目』(2) 「書堂立議」

39) 『玉溜閣契帖』 「學規」

사는 교체하지 않고, 직일은 해마다 교체하도록 하였다.⁴⁰⁾

17세기 중반~18세기 초반까지 운영된 비래서당계는 현재 확인되는 자료로는 유사와 장의의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운영된 비래서당계의 경우 『옥류각계임장기(玉溜閣契任掌記)』, 1884~1907년까지 강희 참여자의 명단을 작성한 『도기(到記)』와 『강록(講錄)』 등이 남아 있어, 이 자료들을 통해 임원 명단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옥류각계임장기』에서는 1883년 계장, 장의, 유사와 1900년 장의, 유사를 확인할 수 있다. 1883년 9월 계장은 송중오, 장의는 송중렴, 일유사는 송기용, 이유사는 이명석이었다.⁴¹⁾ 1884년에도 계장은 송중오였으며, 강유사를 겸한 일유사는 이선식으로 바뀌었고, 직일은 권헌수였다.⁴²⁾ 1883년과 1884년의 계장인 송중오(1828~1904)는 『玉溜閣契座目』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며, 1867년 선공감역에 제수된 후 1875년 익위사시직으로 동궁에서 필법을 가르친 인물이다. 이후 의빈도사, 훈도좌사, 제용감주부 등을 거친 후 1888년에 무자 별시 문과에서 장원 급제하여 공조참의로 제수된 인물이다.⁴³⁾ 1883년 장의인 송중렴(1840~1889)은 1880년에 천거되어 조정에 나갔던 인물이다. 계장 송중오와 장의 송중렴은 송영로의 아들로 동춘당파 22세손이다.⁴⁴⁾ 1900년에는 장의는 송덕용, 일유사는 이선식, 이유사는 이영석이었다.⁴⁵⁾ 맡은 업무의 경우 장의는 비래서당계 사무와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며, 유사는 契物의 출납 등 실무적인 일을 하였고, 직일은 강론된 내용과 선약자에 대한 일들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⁴⁶⁾

둘째, 모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중반~18세기 초반까지 운영된 비래서당계에서 강신(講信)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하며, 날짜는 유사와 장로들에게 물어 무고한 날짜로 정하도록 하였다.⁴⁷⁾ 17세기 중반~18세

40) 『玉溜閣契帖』 『學規』

41) 『玉溜閣契任掌記』(癸未)

42) 『玉溜閣契玉溜講會錄』(甲申)

43) 『文科榜目』

44) 宋佐彬 編輯, 『恩津宋氏同春堂文正公派譜』, 同春堂文正公派譜所, 1994.

45) 『玉溜閣契任掌記』(癸未)

46) 『玉溜閣契帖』 『學規』

기 초반 비래서당계 강신과 관련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서당입의』의 원칙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반면 19세기 말에 시행된 비래서당계에서는 강회와 계회를 구분하여, 강회는 3월 15일과 9월 15일로 하도록 하였으며, 계회는 강회와 겹치지 않는 날짜에 시행하도록 하였다.⁴⁸⁾ 1883년부터 1907년까지의 『도기』를 통해 실제 강회가 시행되었던 날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1883년은 폐계(廢契)되었던 비래서당계가 다시 만들어진 해로, 계가 다시 만들어진 날인 1883년 9월 23일에 강회가 있었으며, 1884년부터 1907년까지 전체적으로 3월 15일과 9월 15일에 강회가 진행되었다.⁴⁹⁾ 단, 1896년 가을 강회는 9월 15일이 아닌 10월 11일에 시행이 되었으며, 1897년에는 봄 강회는 실시하지 않았음을 『도기』에서 밝히고 있다.⁵⁰⁾ 또한 1901년, 1902년 등에도 강회가 1년에 한 번만 시행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중에 강회 마지막 기록은 1907년 9월이다.⁵¹⁾ 이를 볼 때 비래서당계는 20세기 초반까지는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시행된 비래서당계에서는 『옥류각향음주례시도기』의 자료 등을 볼 때 강회시 향음주례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운영된 비래서당계는 처음에 어떻게 출자금을 마련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단, 계는 보곡(保谷) 40석을 보존하고, 매년 20석을 이자로 취하여 서책을 사거나 전답을 사도록 하였다.⁵²⁾ 주목되는 점은 40석의 분급 방법이다. 보곡(保谷) 40석은 계원이나 타지역의 양반, 고자(庫子)에게는 분급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상한(常漢) 4명을 택하여 보증인을 세워 분급하도록 하였다. 반면 19세기 말에 다시 계가 만들어질 때는 계원마다 각각 100문동씩을 내

47) 『飛來書堂座目』(1) 『書堂立議』; 『飛來書堂座目』(2) 『書堂立議』

48) 『玉溜閣契帖』 『立議』

49) 『到記』(癸巳)는 1893년부터 1898년까지의 도기가 작성되어 있다.

50) 『到記』(癸巳)

51) 『到記』(丁未)

52) 『飛來書堂座目』(1) 『書堂立議』; 『飛來書堂座目』(2) 『書堂立議』

도록 하였으며, 14전의 이자를 모아 매년 가을 계 모임에서 거두도록 하였다. 또한 강학을 위한 각을 중수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의 재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계가 설립되고 3년으로 한정하여 비용을 절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³⁾

넷째, 벌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래서당계 벌목은 시기마다 처벌 방식이 다른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2]이다.

[표2] 비래서당계 벌목

| | 『飛來書堂座目』 | 『玉溜閣契帖』 |
|----|----------|---|
| 상벌 | 태노 40대 | 사류는 마당에 세워놓고 힐책을 하고, 장자는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곳에서 면책한다. |
| 중벌 | 태노 30대 | 사류로 서벽 이상은 면책하고, 장자는 반감한다. |
| 하벌 | 태노 20대 | 사류는 자리에서 나와 벌주로 한잔을 마시고, 장자는 자리를 피해 나가 앉아서 규책을 받는다. |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의 비래서당계 벌목은 종이 대신 매를 맞는 태노(答奴)이다. 태노가 처벌 방식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계는 다른 계와 다르다. 따라서 학궁(學宮)의 예에 의하여 벌은 다 태노로 시행하고, 만약 불순한 계원이 있으면 관에 고하여 벌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⁵⁴⁾ 벌목은 서당에서 준비된 서책을 사사로이 가지고 갈 수 없는데, 혹 빌려 가서 위반하는 사람을 벌을 논하도록 하였고, 집회에 불참하거나 늦게 도착한 사람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도록 하였다.

반면 19세기 말에 시행된 비래서당계에서는 상벌, 중벌, 하벌을 사류(士類)와 장자로 나누고 있다. 이는 이익의 사창계약속의 벌목 내용과 유사하다. 상벌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른 지역 사람이 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원의 천거 후에 입학을 허락하는데, 만약 입학 후에 잘못된 행동이 거듭 생기면 그 사람은 출안(黜案)하고 추천한 사람은 상벌하도록 하였다.⁵⁵⁾ 중벌과 하벌

53) 『玉溜閣契帖』 「立議」

54) 『飛來書堂座目』(1) 「書堂立議」; 『飛來書堂座目』(2) 「書堂立議」

은 모임에 불참하는 경우인데,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는 하별하고, 3년 연속 불참하는 자는 중별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운영된 서당의 처벌 방식은 서당마다 다르게 규정되는데, 17세기 충청도 옥천의 자풍서당의 경우 서책을 파손하고 더럽힌 자와 돌려서 빌려준 자는 영구히 손도(損徒)하거나 강회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는 경중에 따라 면책(面責)하는 등 잘못에 대한 처벌 방식이 출재(黜齋), 삭적(削籍), 삭명(削名), 손도, 면책, 태노 등이었다.⁵⁶⁾

마지막으로 가입과 투입, 좌목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래서당계의 가입과 관련한 규정은 확인할 수 없으며, 투입 규정은 19세기 말에 시행된 비래서당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비래서당계에서 추가 입학과 관련해서는 동향(同鄉) 사람과 타향(他鄉) 사람의 입학 조건을 다르게 하고 있다. 동향 사람이 입학을 원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입학을 허락하는 반면, 타향 사람이 입학을 원하는 때는 반드시 천거 후에 입학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앞에 별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천거를 통해 들어온 사람이 입학 후 문제가 생기면 입학자는 비래서당계에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천거한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비래서당계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투입하는 것보다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까지 운영되었던 비래서당계의 경우 투입과 관련된 규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飛來書堂座目』(2)에는 12번의 투입자 명단 등을 통해 투입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좌목 작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래서당계 좌목은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처음 작성될 때는 나이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투입의 경우 투입된 순서대로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여 좌목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비래서당계 좌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자 명단은 [표3]과 같다.

55) 『玉溜閣契帖』 「立議」

56) 고수연, 「17세기 忠淸道 沃川 資風書堂의 운영과 인적구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역사문화학회, 2021, 245~256쪽.

[표3] 비래서당계 계원 중 서자

| 자료명 | 이름(자) | | 이름 | 자 | 이름 | 자 | 이름 | 자 | 이름 | 자 |
|-------------|-------------|-----|-----|-----|-----|-----|-----|--------------------|-----|----|
| | 『飛來書堂座目』(1) | | 서운사 | | 송홍길 | 士豪 | 송국침 | 景望 | 송효길 | 源甫 |
| | | 송상검 | 子文 | 이시회 | 善養 | 김익선 | 止叔 | 송광빈 | 士華 | |
| | | 서진원 | 起叔 | 이장길 | 直卿 | 송광림 | 茂之 | 김진병 | 公晦 | |
| 『飛來書堂座目』(2) | 구록 | 서운사 | 晦叔 | 이시회 | 善養 | 김익선 | 止叔 | | | |
| | | 송홍길 | 士豪 | 송국침 | 景望 | 송효길 | 源甫 | 송상검 | 子文 | |
| | 신록 | 송광빈 | 士華 | 서진원 | 起叔 | 이평 | 直敬 | 이장길 | 直卿 | |
| | | 이담 | 士靜 | 김진병 | 公晦 | 서경거 | 子大 | 송병우 | 汝廓 | |
| | | 서경지 | 士□ | 송광림 | 茂之 | 김현석 | 汝圭 | 송방필 | 夢興 | |
| | 추입1 | 송광천 | 壽之 | 송광영 | 仁之 | | | | | |
| | | 서치원 | 靜叔 | 송규오 | 公瑞 | 송규석 | 公賚 | 송정봉 | 文瑞 | |
| | 추입2 | 송병주 | 汝厚 | | | | | | | |
| | | 송규혁 | 公輝 | 송하시 | □行 | 송병운 | | 송하직 | | |
| | 『飛來書堂座目』(3) | 구록 | 송홍길 | 士豪 | 송국침 | 景望 | 송효길 | 源甫 | 송상검 | 子文 |
| 송광빈 | | | 士華 | 서진원 | 起叔 | 이평 | 直敬 | 이장길 | 直卿 | |
| 이담 | | | 士靜 | 송병우 | 汝廓 | 송광림 | 茂之 | 송광영 | 仁之 | |
| 신록 | | 서치원 | 靜叔 | 김진병 | 公晦 | 서경거 | 子大 | 송규오 | 公瑞 | |
| | | 서경지 | 士□ | 송규석 | 公賚 | 김현석 | 汝圭 | 송방필 ⁵⁷⁾ | 夢興 | |
| | | 송광천 | 壽之 | 송규혁 | 公輝 | | | | | |
| 『玉溜閣契帖』 | | 정동식 | 伯春 | 백락현 | 景仲 | | | | | |

[표3]에서 송국침은 은진송씨 12대손인 송남수의 손자로 그의 아버지가 서자이며, 송광빈은 송승길의 서자이다. 또한 김진병은 김경여의 서자이다. 『飛來書堂座目』(2)와 『飛來書堂座目』(3)의 송광천과 송광영은 송준길의 서자이다.⁵⁸⁾

『飛來書堂座目』(1)의 119명 중 82번까지는 나이순으로 작성하고 82번부

57) 『飛來書堂座目』(2)의 송방필과 같은 인물이다.

58) 『恩津宋氏族譜』(1887)에서는 서자를 표시하고 있다.

터 107번째까지는 추입자를 작성한 후 108번째 서운사부터 119번 김진병까지는 12명의 서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飛來書堂座目』(2)는 적자와 서자에 대한 추입자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飛來書堂座目』(2)에서는 12번의 추입이 확인되는데, 이 중 2번은 서자의 추입 명단이다. 『玉溜閣契帖』에서는 적자와 서자와 상관없이 추입된 순서대로 작성하였으며, 정동식, 백락현 등을 기록할 때에는 한 글자 아래로 기록하고 있다. 좌목류에서 한행을 아래로 기술하는 방식은 서자 출신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조선 후기 좌목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이다.⁵⁹⁾

4. 비래서당계 구성원의 특징

『飛來書堂座目』(1), 『飛來書堂座目』(2), 『飛來書堂座目』(3), 『玉溜閣契帖』은 비래서당계 계원의 명단인 좌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비래서당계 구성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래서당계 계원의 구성 성씨 비율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비래서당계 계원의 구성 성씨

| 자료명 | 송 | 김 | 이 | 박 | 곽 | 서 | 정 | 신 | 민 | 오 | 윤 | 연 | 최 | 조 | 한 | 황 | 총 | |
|---------------------------|----|-----|----|----|---|---|---|---|---|---|---|---|---|----|---|---|-----|-----|
| 『飛來書堂座目』(1) | 82 | 7 | 7 | 6 | 3 | 3 | 3 | 2 | 2 | 1 | | | 1 | | 1 | 1 | 119 | |
| 『飛來書堂座目』(2) (추입 12 포함) | 구록 | 24 | 3 | 2 | 2 | | 1 | 1 | 2 | 1 | 1 | | 1 | | | | 38 | |
| | 좌목 | 166 | 7 | 21 | 9 | 9 | 5 | 4 | | 1 | | 1 | 1 | 10 | 2 | 8 | 2 | 246 |
| 『飛來書堂座目』(3) (추입 1 포함) | 구록 | 64 | 1 | 10 | 4 | 4 | 2 | 2 | | 1 | | | 1 | 3 | | 2 | 1 | 95 |
| | 좌목 | 105 | 9 | 11 | 7 | 6 | 3 | 9 | | | | 1 | | 7 | 2 | 6 | 1 | 167 |
| 자료명 | 송 | 김 | 이 | 신 | 정 | 조 | 권 | 남 | 백 | 소 | 심 | 안 | 유 | 임 | 홍 | | 79 | |
| 『玉溜閣契帖』 | 48 | 3 | 13 | 2 | 2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79 | |

59) 성봉현, 앞의 논문, 96쪽.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비래서당계 좌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성씨는 은진송씨이다. 17세기 중엽에 작성된 『飛來書堂座目』(1)에서는 119명 중 82명이 은진송씨이며, 1883년에 계가 다시 만들어졌을 때도 79명 중 은진송씨는 48명을 차지한다. 즉,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까지 비래서당계에서 은진송씨는 구성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은진송씨는 회덕의 대표적인 재지사족이다. 은진송씨가 회덕에 입향한 것은 고려말로 송명의였다. 송명은 회덕황씨인 황수(黃粹)의 딸과 결혼하면서 회덕현이 처향으로 되었다. 이후 은진송씨는 회덕에서 세거하였으며, 16세기부터 재지사족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⁶⁰⁾ 비래서당이 위치한 곳은 송준길의 집인 동춘당 근처이다. 동춘당이 있었던 곳은 회덕의 송촌(宋村)으로, 송씨가 번창하였기 때문에 부르게 된 지역이다.

비래서당은 은진송씨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던 문중서당이다. 문중서당은 종중원들 간의 서당계나 문중계를 두고 있다. 예컨대 결성장씨 문중서당으로 연기군 동면에 위치한 송동재(松洞齋)는 서당의 교육 대상은 인근 사족들의 자손까지로 하였지만 서당계는 족원들로만 조직하였다.⁶¹⁾ 반면 비래서당계는 은진송씨 이외에 다른 성씨들도 함께 조직되었다. 따라서 비래서당계원 중 은진송씨 이외의 다른 성씨와 은진송씨의 관계 등을 통해 비래서당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飛來書堂座目』(1), 『飛來書堂座目』(2)과 『飛來書堂座目』(3)의 은진송씨와 다른 성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17세기 중엽에서~18세기 초반의 비래서당계 좌목에 작성된 김씨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래서당계 계원 중 김씨는 [표5]와 같다.

60) 이정우, 「조선 후기 충청도 회덕현 세거성씨의 형성과 동향」, 『대전문화』 제6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2, 181쪽.

61) 이연숙, 「동족마을의 서당 설립과 근대적 변화: 연기군 동면 결성장씨가를 사례로」, 『조선시대사학보』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125~126쪽.

[표5] 비래서당계 계원 중 김씨(굵은 표시 김경여 후손)

| 자료명 | 이름(자) | 이름 | | 자 | | 이름 | | 자 | |
|-------------|-------|-----|----|-----|----|-----|----|-----|----|
| | | 이름 | 자 | 이름 | 자 | 이름 | 자 | 이름 | 자 |
| 『飛來書堂座目』(1) | | 김진수 | 晦叔 | 김효석 | 仁伯 | 김중석 | 汝任 | 김명석 | 夢徵 |
| | | 김익선 | 止叔 | 김진병 | 公晦 | | | | |
| 『飛來書堂座目』(2) | 구록 | 김진수 | 晦叔 | 김효석 | 仁伯 | 김익선 | 止叔 | | |
| | 신록 | 김창석 | 文仲 | 김중석 | 汝任 | 김명석 | 夢徵 | 김정운 | 新甫 |
| | | 김익정 | 受卿 | 김진병 | 公晦 | 김현석 | 汝圭 | | |
| 『飛來書堂座目』(3) | 구록 | 김중석 | 汝任 | | | | | | |
| | 신록 | 김창석 | 文仲 | 김익정 | 受卿 | 김명석 | 夢徵 | 김정운 | 新甫 |
| | | 김일운 | 始甫 | 김성운 | 啓甫 | 김택운 | 得甫 | 김진병 | 公晦 |
| | | 김현석 | 汝圭 | | | | | | |
| 『玉溜閣契帖』 | | 김지수 | 心一 | 김정필 | 元弼 | 김가수 | 聖□ | | |

[표5]에서 확인되는 인물 중 대부분은 경주 김씨로, 김경여의 후손들이다. 김경여의 가계는 은진송씨와의 혼인으로 회덕 송촌에 세거하였다. 경주김씨가 송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김경여의 아버지인 김광유가 송촌에 세거하였던 송남수의 사위가 되면서부터이며, 김경여도 외가인 송촌에서 출생하여 송촌에서 세거하였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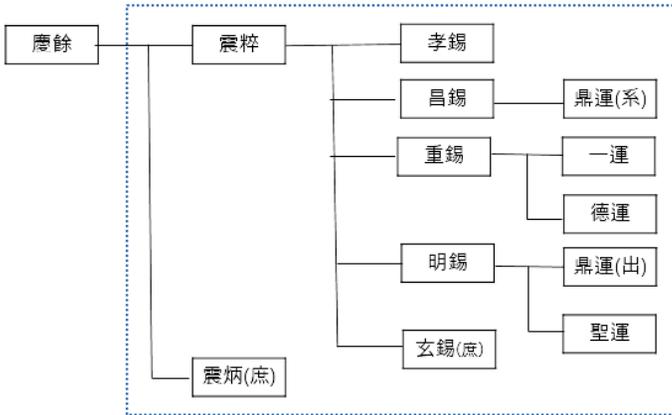
회덕 송촌에서 세거했던 김경여는 송준길, 송시열과 함께 김장생과 김집의 문인이기도 하였다. [표6]을 통해 살펴보면, 비래서당계 계원 중 김진수와 김진병은 김경여의 자식이며, 김효석, 김창석, 김중석, 김명석, 김현석은 김진수의 자식이다. 김진수, 김중수, 김창석은 송준길의 문인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³⁾ 김정운은 김창석의 아들이며, 김일운, 김택운은 김중석의 아들이고, 김성운은 김명운의 아들이다. 즉, 김경여 가계는 은진송씨와 혼인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김경여가 송준길, 송시열과 함께 김장생과 김집의 문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은진송씨와 깊은 관계 맺었다. 이에 김경여의 후손들이

62) 성봉현, 『회덕 송촌동 대동계 연구』, 『호서지방사연구』, 경인문화사, 2003, 219쪽.

63) 『同春堂集續集』 제12권, 『附錄』 7

비래서당계 좌목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6] 비래서당계 계원 중 김경여의 후손 가계도
(점선 박스 안의 인물이 좌목에 작성된 인물)



다음으로 이씨에 대해서 살펴보면, 좌목에 작성된 이씨는 함평이씨, 전주이씨, 연안이씨 등이다.⁶⁴⁾ 이중 17세기 중엽에서~18세기 초반 좌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씨는 연안이씨이다. 연안이씨는 은진송씨가 중심을 이루었던 송촌 일대에 세거하였는데, 김장생의 문인이기도 한 이시직과 은진송씨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안이씨 가문이 회덕지역으로 입향하게 된 것은 이시직의 조부인 이정현이 송세영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며, 이시직의 첫째 아들 이경은 송갑조의 딸과 혼인하였다.⁶⁵⁾ 또한 이시직은 송시영과 병자호란에서 함께 자결한 인물로 이시직과 송시영은 송현서원에 추향되기도 하였다.⁶⁶⁾ 이처럼 은진송씨와 연안이씨는 혼인, 학문적 연계 등으로 연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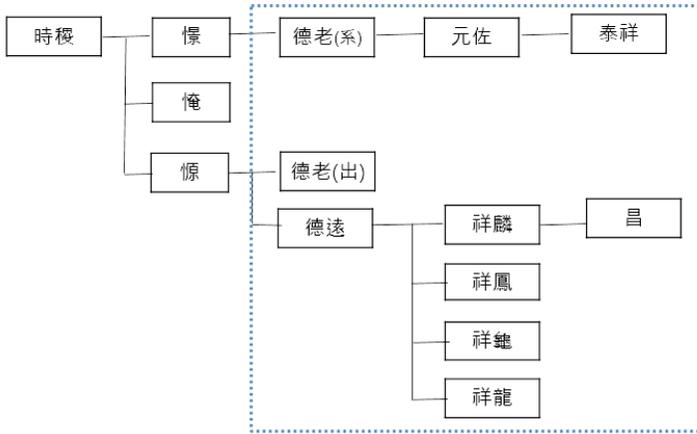
64) 『飛來書堂座目』(1), 『飛來書堂座目』(2), 『飛來書堂座目』(3)의 이씨는 이침, 이상길, 이덕원, 이덕로, 이덕연, 이시회, 이장길, 이평, 이담, 이계술, 이덕원, 이상구, 이상린, 이상백, 이상봉, 이상용, 이상징, 이상화, 이소, 이엽, 이원좌, 이창, 이태상 등 21명이다.

65) 이정우, 앞의 논문, 189쪽.

66) 이정우, 『조선후기 회덕현 사족의 향권장악: 恩津宋氏를 中心.』, 『충남사학』 제7집, 충남대학교사학회, 1995, 18~19쪽.

어 있다. 비래서당계 좌목의 연안이씨는 이시직의 직계 후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덕로와 이덕원은 이시직의 손자이며, 이상린, 이상봉, 이상구, 이상용은 덕원의 자 등이다. 비래서당계 좌목에 작성된 이시직의 후손은 [표 7]과 같다.

[표 7] 비래서당계 계원 중 이시직의 후손 가계도
(점선 박스 안의 인물이 좌목에 작성된 인물)



경주김씨와 연안이씨는 회덕에서 은진송씨와의 혼인과 학연 관계를 바탕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은진송씨만큼은 아니지만 17세기에는 회덕에서 영향력 있는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였다.⁶⁷⁾ 반면 좌목에 작성된 박씨는 순천박씨로, 순천박씨는 조선초기 회덕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이거하면서 회덕 안에서의 그 세력은 미미하였다. 비래서당계에 좌목에 작성된 박세징, 박세량, 박세휘 박세진, 박사제는 송준길의 문인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박세휘는 송시열을 변무하다가 유배를 간 인물이었다. 또한 광씨는 현풍광씨로, 광명환, 광종간, 광의한 등이 있다.⁶⁸⁾ 현풍광씨는 13세 광지겸의 대에서부터 회덕에

67) 송인협, 『17~18세기 회덕지방 재지사족 동향-송헌서원 청금록을 중심으로』, 『호서지방사연구』, 경인문화사, 2003, 373~385쪽 참조.

68) 『飛來書堂座目』(1), 『飛來書堂座目』(2), 『飛來書堂座目』(3)의 광씨는 광명환, 광의한, 광종간, 광상희, 광상렬, 광상훈, 광경득, 광종로, 광종로으로 총 9명이다.

서 살기 시작하였다.⁶⁹⁾ 좌목에 작성된 인물들은 대부분 18세손인 광명한의 후손으로 광종간은 광명한의 아들이며, 광상렬, 광상훈, 광상희는 광종간의 아들이었다. 광명한, 광종간, 광의한은 송준길의 문인록에서도 확인된다.⁷⁰⁾

서씨는 모두 부여서씨로, 서명원, 서운사, 서진원, 서치원, 서경거, 서경지 등이다. 좌목의 서씨 중 서명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자이다. 서명원은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인이며,⁷¹⁾ 서진원, 서경거, 서경지 역시 송준길의 문인록에서 확인된다.⁷²⁾ 부여서씨가 회덕에 언제부터 정착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부여서씨 봉례랑공파(奉禮郎公派) 15세이자 석선공파(石仙公派)의 시조인 서양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양갑은 목사 서익의 서자로 처는 송이창의 누이로 송준길의 고모이기도 하다.⁷³⁾ 서양갑은 은진송씨와의 혼인으로 회덕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좌목의 서치원, 서경거, 서경지는 서양갑의 직계 후손이다.⁷⁴⁾ 이외에 신만, 신성, 오익승, 정지하, 황세정 등은 송준길, 송시열과 학맥 등으로 깊은 연관이 있었던 인물들이다.

『飛來書堂座目』(1)에서 은진송씨 이외의 타성은 은진송씨와 혼인이나 학맥으로 연관이 있었던 김경여와 이시직의 직계 후손이거나 신익룡의 아들인 신만과 신성, 서명원, 오익승, 정지하, 황세정 등 송준길, 송시열 등과 연계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飛來書堂座目』(2)와 『飛來書堂座目』(3)에는 『飛來書堂座目』(1)에 작성된 인물의 아들이나 손자 등 후손들이 연계되어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른바 사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면서 상호간 혈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서당은 단순히 향촌사회를 성리학적 질서의 사회를 이끌기 위한 매개 기구로 이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족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지배 세력을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다.⁷⁵⁾ 비래서당계 구성원을 살펴볼때 비래

69) 현풍곽씨는 선산 등으로 불리다가 선사곽씨는 별로로 족보를 만들었다. 광명한의 후손은 현재 선산 곽씨세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70) 『同春堂集續集』 제12권, 『附錄』 7

71) 송인현, 「17~18세기 회덕지방 재지사족 동향-송현서원 청금록을 중심으로」, 『호서지방사연구』, 경인문화사, 2003, 381쪽.

72) 『同春堂集續集』 제12권, 『附錄』 7

73) 이해준, 「공주 홍길동 관련 전승자료의 성격과 의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1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18, 149쪽.

74) 『扶餘徐氏世譜』, 1925.

서당계 역시 단순한 강학의 목적 뿐 아니라 은진송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결합과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반면 1883년 작성된 『玉溜閣契座目』에는 구성원에서 은진송씨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17세기 중엽~18세기 초반 비래서당계 구성 성씨에서는 확인되었던 부여서씨, 현풍곽씨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안동권씨·의령남씨·진주소씨·청송심씨 등 9개 성씨가 확인된다. 이씨의 경우도 17세기 중엽~18세기 초반 비래서당계 좌목에서는 연안이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19세 말에는 13명의 이씨 중에 고성이씨 4명, 완산이씨 2명, 우봉이씨 1명, 전의이씨 1명, 전주이씨 1명, 한산이씨 1명으로 연안이씨는 찾아볼 수 없다. 김씨 3명 중에서 1명만 경주김씨로, 김경여의 후손이었다. 즉, 19세기 말의 비래서당계 구성원 중 은진송씨 이외의 타성의 경우 같은 성씨의 인물은 1명 혹은 2명이며, 가장 많은 성씨가 고성이씨로 4명이다.

조선사회에서 양반 가문의 명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사환을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손들의 사마시 입격과 문과 급제는 본인의 관료로서 입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였다.⁷⁶⁾ 특히 사마시의 입격은 바로 입사가 보장되지 않지만 국가로부터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공인받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⁷⁷⁾ 이에 17세기 중엽~18세기 초 비래서당계 계원 중 사마시 입격자를 살펴보면, [표8]과 같다.

75) 김무진, 『조선 후기 서당의 사회적 성격』, 『역사와 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243쪽.

76) 성봉현, 『회덕에 입향한 은진송씨의 가계와 사람들』, 『恩津宋氏 山林之門 : 학덕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다: 은진송씨 특별전』 대전시립박물관, 2017, 200쪽.

77) 박진철, 『조선시대 지방 거주 사족의 사회적 지위 유지 노력과 사마시 - 나주 거주 사마시 입격자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1집, 이화사학연구소, 2010, 142쪽.

[표8] 17세기 중엽~ 18세기 초 비래서당계 계원 중 사마시 합격자

| 이름 | 자 | 사마시 합격시 | 좌목 기재 | 이름 | 자 | 사마시 합격시 | 좌목 기재 |
|-----|----|----------------------|----------------------|-----|----|----------------------|----------------------|
| 송규태 | 大來 | 1654(갑오) 식년 생원 2등 | 『飛來書堂座目』 (1) | 정창운 | 會甫 | 1717(정유) 식년 생원 3등 | 『飛來書堂座目』 (2) |
| 송규정 | 伯興 | 1654(갑오) 식년 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1) | 송필항 | 汝久 | 1702(임오) 식년 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2), (3) |
| 송광식 | 希張 | 1654(갑오) 식년 진사3등 | 『飛來書堂座目』 (1) | 김정운 | 新甫 | 1710(경인) 증광 진사 2등 | 『飛來書堂座目』 (2), (3) |
| 송규상 | 興叔 | 1654(갑오) 식년 생원 3등 | 『飛來書堂座目』 (1) | 이계술 | 善卿 | 1708(무자) 식년 생원 3등 | 『飛來書堂座目』 (2) |
| 이상길 | 重卿 | 1652(임진) 증광 생원 2등 | 『飛來書堂座目』 (1) | 송필환 | 聖章 | 1713(계사) 증광 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2), (3) |
| 송규창 | 季興 | 1663(계묘) 식년 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1), (2) | 송필겸 | 達甫 | 1705(을유) 증광 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2), (3) |
| 송규렴 | 道源 | 1648(무자) 식년 생원 3등 | 『飛來書堂座目』 (1) | 송요좌 | 道能 | 1705(을유) 식년 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3) |
| 곽종간 | 直卿 | 1678 무오 증광 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1), (2) | 김성운 | 啓甫 | 1713(계사) 증광 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3) |
| 송명원 | 子徵 | 1669 기유 식년 생원 3등 | 『飛來書堂座目』 (1), (2) | 정계현 | 思叔 | 1727(정미) 증광 생원 3등 | 『飛來書堂座目』 (3) |
| 송상중 | 孝先 | 1673 계축 식년 생원 3등 | 『飛來書堂座目』 (1), (2) | 김덕운 | 得甫 | 1715(을미) 식년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3) |
| 송상철 | 原明 | 1687 정묘 식년 진사 3등 | 『飛來書堂座目』 (1), (2) | | | | |

『飛來書堂座目』(1)의 좌목 인물 중 11명이 생원진사에 합격하였으며, 이 중 이상길을 제외하고는 10명은 은진송씨이다. 또한 11명 중 송규태, 송규정, 송광식, 송규상, 이상길, 송규렴은 『飛來書堂座目』(1)이 작성되기 전에 합격하였다. 『飛來書堂座目』(2)의 신록과 추입 명단의 인물 중 12명이 생원진사에 합격하였는데, 이 중에 송규창, 송명원 등 4명은 『飛來書堂座目』(1)에서 언급된 인물들이며, 나머지 8명은 좌목이 작성된 이후에 합격하였다. 8명 중 4명은 은진송씨이다. 반면 『飛來書堂座目』(3)의 신록과 추입 명단의 인물 중 9명이 합격하였는데, 이 중 5명 『飛來書堂座目』(2)에서 언급된 인물

들이다. 4명 중 은진송씨는 송요화 한명으로, 은진송씨의 입격 비율이 이전 시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19세기말 비래서당계 계원 중에서는 송면노, 송명노, 송병시가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송종오, 송도순, 이정직, 유진삼은 사마시를 거치지 않고 문과에 합격하였다. 사마시 입격자와 문과 합격자 중 은진송씨는 모두 은진송씨 동춘당파의 후손들이다. 또한 이정직도 회덕 송촌에서 운영되었던 동춘당대 동계의 상계원으로 입록되었던 인물이다.⁷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의 비래서당계 계원이나 사마시 입격자의 경우 은진송씨 연안공파, 호군공파, 삼가공파, 동춘공파, 사우당파 등 회덕에서 거주하는 은진송씨의 다양한 파의 인물들이 모여 계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19세기말 비래서당계 계원 79명 중 48명이 은진송씨인데, 연안공파, 삼가공파 등이 있기는 하지만 동춘당파가 다수를 차지한다. 19세기 말 다시 만들어진 비래서당계는 회덕 은진송씨 중에서도 동춘당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충청도 회덕현의 은진송씨 문중서당인 비래서당계의 운영과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래서당계 관련 자료인 『飛來書堂座目』(1), 『飛來書堂座目』(2), 『飛來書堂座目』(3), 『玉溜閣契帖』에 작성된 인물의 생몰년 등을 살펴볼 때, 비래서당계는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졌으며, 18세기 초반까지 운영되다가 폐지되었다. 이후 1883년에 다시 계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의 비래서당계의 운영 살펴보면, 임원은 유사 2명과 장의 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모임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재정의 경우 보곡(保谷) 40석을 보존하고, 매년 20석을 이자로 취하여 서책을 사거나 전답을 사도록 하였고, 별목의 경우 상벌은 태노

78) 황기준, 「18·19세기 懷德 宋村大同契의 운영과 성격」,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86쪽.

40대, 중별은 태노 30대, 하별은 태노 20대로 규정하였다. 좌목 작성의 경우 나이순으로 작성하고 추입자 명단을 작성한 다음 서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19세기 말 다시 만들어진 비래서당계의 경우, 임원은 계장 1인, 장의 1인, 유사 2인, 직일 1명을 두도록 하였다. 모임은 강회와 계회를 구분하였으며, 강회는 3월 15일과 9월 15일로 하도록 하였다. 1883년부터 1907년의 『도기』를 살펴볼 때, 대부분 3월 15일과 9월 15일에 강회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은 다시 계가 만들어질 때 계원마다 각각 100문동씩을 내도록 하였고, 14전의 이자를 매년 가을 계 모임에서 거두도록 하였다. 별목은 상별, 중별, 하별을 사류와 장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비래서당은 은진송씨의 문중서당으로,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까지 비래서당계에서 은진송씨는 구성원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비래계서당계의 은진송씨 이외의 다른 성씨를 살펴보면, 은진송씨와 혼인이나 학맥으로 연관이 있었던 경주김씨 김경여와 연안이씨 이시직의 직계 후손이거나 송준길이나 송시열 등과 연관이 있었던 인물들이다. 이는 비래서당계가 단순한 강학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은진송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결합을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19세기 말 비래서당계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의 비래서당계에서 은진송씨는 연안공과, 호군공과, 삼가공과, 동춘공과, 사우당과 등 회덕에서 거주하는 은진송씨의 다양한 과가 입록된 반면 19세기 말 비래서당계에서는 은진송씨 동춘당과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19세기말 비래서당계 계원의 사마시와 문과 합격자는 모두 은진송씨 동춘당과였다. 이를 볼 때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의 비래서당계는 회덕의 은진송씨 세력의 결합과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면 19세기 말 다시 만들어진 비래서당계는 회덕 은진송씨 중에서도 동춘당과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同春堂集』

『松崖先生文集』

『宋子大全』

『玉吾齋集』

『恩津宋氏族譜』(1887)

『恩津宋氏同春堂文正公派譜』(1994)

『貞菴集』

『懷德邑誌』(1786)

고수연, 「17세기 忠淸道 沃川 資風書堂의 운영과 인적구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4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21.

김무진, 『조선후기 서당의 사회적 성격』, 『역사와 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김문준, 「기호유학에서의 우암 송시열의 위상」, 『유학연구』 1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7.

김택규, 「조선시대 향촌서당의 기능: 17세기의 사회적 배경과 향촌교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7, 비교민속학회, 1991.

박진철, 「조선시대 지방 거주 사족의 사회적 지위 유지 노력과 사마시 - 니주 거주 사마시 합격자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1집, 이화사학연구소, 2010.

성봉현, 「회덕 은진송씨가의 비래서당계와 옥류각계」, 『대전문화』 제16호, 대전광역시, 2007.

송인협, 「17~18세기 회덕지방 재지사족 동향 송헌서원 청금록을 중심으로」, 『호서지방사연구』, 경인문화사, 2003.

양승률, 「舟村 申曼의 『保幼新編』 편찬과 『舟村新方』」, 『장서각』 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이연숙, 「동족마을의 서당 설립과 근대적 변화: 연기군 동면 결성장씨가를 사례로」, 『조선시대사학보』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이 욱, 「18 세기 가학 전승과 문중서당」,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이정우, 「조선후기 충청도 회덕현 세거성씨의 형성과 동향」, 『대전문화』 제6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2.

_____, 「조선후기 회덕현 사족의 향권장악: 恩津宋氏를 中心」, 『충남사학』 제7집, 충남대학교사학회, 1995.

이해준, 「공주 홍길동 관련 전승자료의 성격과 의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1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18.

_____, 「칠곡 인동장씨 정사·서당·서원 건립 활동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8, 한국서원학회, 2019.

정구복, 「19세기 중엽 영광 영월신씨가의 서재계문서」, 『고문서연구』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정순우, 「초기 퇴계학파의 서당 운영」, 『한국학』 24(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_____, 『서당의 사회사: 서당으로 읽는 조선 교육의 흐름』, 태학사, 2012.

황기준, 「18·19세기 懷德 宋村大同契의 운영과 성격」,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_____, 「18·19 세기 懷德 宋村大同契 下契의 구성과 운영」, 『역사민속학』 5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Study on Operation of Biraeseodanggye in Hoedeok, Chungcheong-do Province, from the 17th to 19th Centuries

Han, Mi Ra*

This thesis aims at understanding the operational aspects of the Biraeseodanggye by analyzing its members and unique features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 Biraeseodang is an educational facility located in Naenam-myeon, Hoedeok-hyeon, Chungcheong-do. Its scale was extended in 1637 when Eunjin Song family as they extend the school building in Biraeam. It was considered that Biraeseodanggye was launched in this period as well. The materials related to Biraeseodanggye that are remaining today are including 『Biraeseodanggye (飛來書堂座目)』(1), 『Biraeseodanggye (飛來書堂座目)』(2), 『Biraeseodanggye (飛來書堂座目)』(3) and 『Okryugakgyecheop (玉溜閣契帖)』. The data reveals that Biraeseodanggye was operated from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It was once discontinued in the middle, but was re-established in 1883 under the name of Okryugakgye. It is believed that this Gye was operat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In regards to its operation, the meetings of the Biraeseodanggye were set to be held in March and September. In the case of the Gye, which was re-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Dogi』 from 1883 to 1907 remains. Through this, you can find out the date of the actual meeting, the list of executives, etc. Most of the meetings were held in March and September

* Chung-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very year. The major difference in operation of the Biraeseodanggye between from the mid 17th to the early 18th century, an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the system was rebuilt is Beolmok. In the case of the Beolmok from the mid 17th to the early 18th century, regardless of the social status of the person who are getting punished, all punishments for Sangbeol, Jungbeol and Habeol were Taeno which is corporal punishment of slaves for the masters misbehavior. On the contrary,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aryu and Jangja were treated differently.

Biraeseodang was the family school of the Eunjinsong family. From the mid 17th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Eunjinsong family was accounted for more than 60% of the members of the Biraeseodanggye. From the mid 17th to the early 18th century, the members who didn't belong to the Eunjinsong family were people bound by marriage or by academic background, and their descendants. It implies that the Biraeseodanggye served not only to teach but also to enhance the unity of forces centered on the Eunjinsong family. On the other hand, a distinguished feature in terms of the members of the Biraeseodanggy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as that among the Eunjinsong family, the Dongchundangpa, descendants of Song Jun-gil, accounted for the majority. In addition, various surnames other than Eunjinsong, which did not appear in the mid 17th - the early 18th century, were confirmed.

Key words: Biraeseodang, Biraeam, Okryugak, Eunjin Song family, Hoedeok